

‘파뉴르주의양(羊)’의 교훈

교활하고 거짓말쟁이인 악독한 인간형이 ‘파뉴르주’이다

어느 날 파뉴르주가 큰 배를 탔는데 갑판 위에는 많은 양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파뉴르주가 양떼의 임자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상인은 파뉴르주의 옷차림이 궤변죄한 것을 보고 대꾸도 하지 않았다. 모욕감을 느낀 파뉴르주는 상인에게 즉시 보복을 하기 위해

“저기 저 제일 큰 양을 나한테 팔지 않겠소? 값은 달라는 대로 다 드리리다.”

하고 다시 말을 건네자 상인은 ‘이때다’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불렀다. 파뉴르주는 아무말 없이 상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즉시 자기가 산 제일 큰 양을 떼밀어 바다 속으로 빠뜨려 버렸다. 그러자 다른 양들이 모두 그 양을 따라 우르르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본래 양들은 우두머리 양의 행동을 무조건 따라서 하는 습성이 있었던 것이다.

별안간 벌어진 사태에 놀란 상인은 그것을 막으려고 양의 꼬리를 잡고 버티다가 결국 양과 함께 바다로 빠지고 말았다.

양떼의 습성을 알고 있던 파뉴르주는 그것을 이용해서 모욕당한 보복을 한 것인데 보복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라블레가 무비판적으로 끌려 다니는 어리석은 군중을 ‘파뉴르주의 양’이라고 풍자한 이야기이며, 우매한 양이 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라는 교훈인 것이다.